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9월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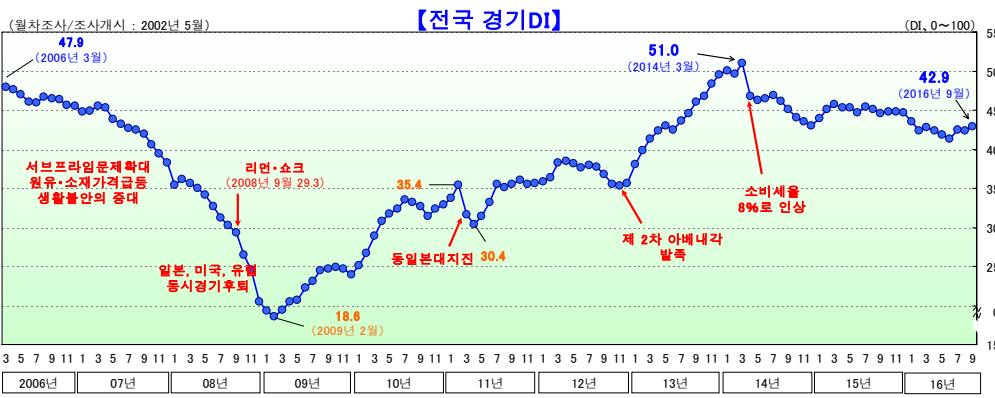
2016년 10월 5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2개월 만에 전국 10개 지역이 개선

~ 국내경기는 『건설』이 뒷받침 ~

(조사대상 2만 3,710사, 유효회답 1만 292사, 회답율 43.4%, 조사개시 2002년 5월)

- ### 조사결과 포인트
- 9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42.9가 되어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전월의 기상 불안정으로 인한 하락세로부터 회복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증가로 건설관련이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공적수요나 주택투자가 뒷받침 요인이 되어 회복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서서히 상승세에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분간은 보합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 『소매』 『제조』 등 8개 지역이 개선, 『부동산』 등 2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전국적으로 호황인 공공공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안전이 활발하여, 왕성한 건설수요에 힘입은 『건설』이나 관련업종이 개선되었다. 「화학품제조」나 「철강·비철·광업」이 호조를 띠 『제조』와 함께 2개 업계가 전체 포인트를 0.4포인트 끌어올렸다.
 - 2개월 만에 『키타칸토』나 『호쿠리쿠』 『큐슈』 등 10개 지역 전체가 개선되었다. 『키타칸토』에서는 현지 대형 제조사의 생산이 호조로,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큐슈』에서는 관광관련에 대한 부흥지원책의 영향으로 「오락 서비스」 등이 상승세였으나, 「쿠마모토」는 일부 제조업의 생산회복이 지연되는 등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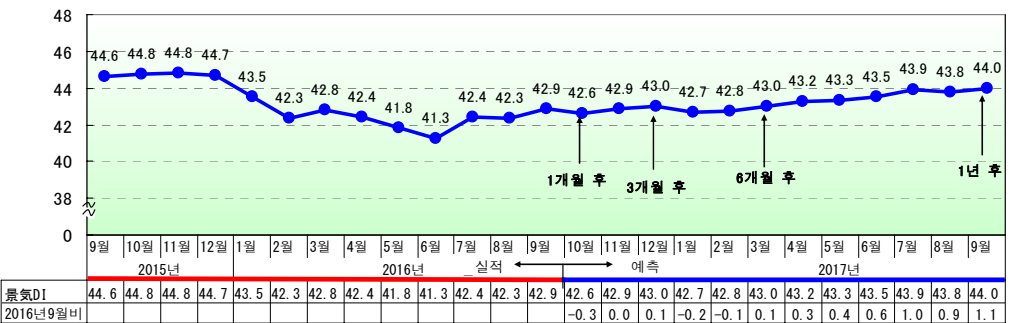


< 2016년 9월의 동향 : 회복세 >

2016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42.9가 되어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일본은행은 9월 21일에 발표한 과거 3년여에 걸친 금융정책의 “총괄적인 검증” 결과를 수용하여 “장·단기금리조작을 포함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의 도입을 통해 금융완화정책을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한 가운데 9월의 국내경기는 태풍 등 전월의 기상 불안정으로 인한 하락세가 회복기미를 보였으며, 공공공사의 증가나 수도권·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재개발 및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호조를 띤 주택투자 등으로 인해 『건설』이나 관련업종이 상승세를 보여, 2개월 만에 10개 지역이 개선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가계소득의 체자리 결음으로 인하여 위축된 소비마인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은 1년 9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하였다. 국내경기는 공적수요나 주택투자가 뒷받침요인이 되어 회복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수준으로 추이 >

일본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정책에 의한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대책이 국내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소비에 관해서는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진피해복구작업과 함께 도쿄올림픽을 위한 공공공사는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서서히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수출기구(OPEC) 비공식회담에서의 감산합의는 가솔린 등 기업의 코스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또 미국에서 9월 금리인상 보류로 인하여 엔고리스크가 높아졌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행방 등도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서서히 상승세에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분간은 보합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 별 : 왕성한 건설수요에 힘입어 『건설』 등 8개 업계가 개선

• 『건설』 『제조』 『소매』 등 8개 업계가 개선되었으며 『부동산』 등 2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8월에 있었던 태풍 피해로부터의 회복 및 전국적으로 호황인 공공공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안건 등으로 왕성한 건설수요에 힘입어 『건설』 이나 관련업종이 개선되었다. 「화학품제조」 「철강·비철·광업」 이 호조를 띠 『제조』 와 함께 2개 업계가 전체를 0.4 포인트 끌어올렸다.

• 『건설』 (48.1) ...전월 대비 1.2 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예산의 조기집행이나 쿠마모토 지진의 복구공사에 더불어 8월 동일본을 습격한 태풍피해에 의한 도로나 하천의 복구공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공공공사가 활발하였다. 또한 마이너스금리를 배경으로 아파트 등 주택착공도 호조를 띠었으며, 지진피해 이후로 내진성 등 방재기능이나 좋은 입지를 원하는 기업의 오피스 이전수요가 꾸준하며, 올림픽 및 방일여행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호텔이나 상업시설의 개수(改修)나 건설 등 수도권이나 지방도시에서 재개발 안건이 잇따라 대형빌딩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공사업 등에서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

• 『제조』 (41.8) ...동 0.9 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인바운드 소비가 고가상품인 시계나 귀금속, 가전에서 화장품 등으로 이행된 것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 「화학품제조」 가 동 2.2 포인트 증가하며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용 전자부품이나 반도체의 수요증가, 생산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자동차생산의 증가 이외에 수도권에서의 대형공사착공 등으로 건설용 금속제품 등이 양호한 「철강·비철·광업」 이 동 1.6 포인트 증가하는 등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소매』 (39.3) ...동 0.9 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연료가격이 안정세인 가운데 8월에 있었던 태풍의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된 핫카이도나 토호쿠의 주유소가 회복된 점 등이 기여하여 「전용상품소매」 가 동 1.4 포인트 증가하였다. 가격인하로 인하여 교체가 활발한 고해상도 텔레비전이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iPhone 은 일본고객을 타겟으로 하여 일본인의 특성을 반영시킨 사양을 탑재한 신기종을 출시하여 「가전·정보기기소매」 가 동 4.8 포인트 증가하였다. 신차 및 중고차나 수입차 등이 견조하여 신차판매가 회복하고 있는 「자동차·동부품소매」 가 동 2.2 포인트 증가하는 등 9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서비스』 (47.9) ...동 0.2 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공공사업이나 올림픽 관련 투자의 증가로 호조를 보인 토목건축서비스 등 「전문서비스」 (동 1.5 포인트 증가) 나 업종 전체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관련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투자가 호조를 보여 수요가 왕성한 「정보서비스」 (동 0.4 포인트 증가) 가 개선되었다. 한편, 국내 소비마인드의 위축과 8월에서 9월에 걸쳐 태풍이나 장마 등 불안정한 날씨가 악영향을 미친 「음식점」 은 동 3.2 포인트 감소하여, 2013년 10월(38.9)이래 2년 11개월 만에 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업계전반에서는 소폭 개선되었다.

	15년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농·임·수산	44.7	44.6	45.2	46.4	43.6	44.5	42.3	42.4	42.1	43.7	42.5	40.1	41.8	1.7		
금융	46.3	47.3	46.6	46.3	45.3	44.3	44.8	45.5	44.3	45.0	45.1	43.7	44.5	0.8		
건설	49.1	49.5	49.6	49.3	47.9	45.9	46.3	45.2	44.9	44.7	46.5	46.9	48.1	1.2		
부동산	48.7	48.7	48.9	48.4	47.1	48.0	48.2	48.1	48.3	48.4	47.8	47.3	47.0	▲ 0.3		
제조	식품료품·서료제조	43.6	44.3	44.5	44.1	44.2	43.2	44.2	44.6	43.4	43.0	43.0	42.1	41.8	▲ 0.3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8.8	39.8	39.4	39.3	36.4	37.6	39.8	38.2	38.4	38.2	37.0	37.8	37.3	▲ 0.5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0.9	40.2	38.9	40.7	38.5	38.0	38.6	37.9	38.3	37.8	40.5	40.7	40.5	▲ 0.2	
	화학·종이·종이제품제조	40.8	41.1	42.4	41.7	40.3	36.8	37.6	40.2	38.6	38.5	40.4	39.4	39.1	▲ 0.3	
	출판·인쇄	34.8	34.8	34.6	34.7	34.0	34.6	35.3	34.1	34.0	32.9	33.5	32.8	33.7	0.9	
	화학품제조	44.4	44.4	44.9	45.4	44.3	42.8	42.7	43.0	42.7	42.2	43.3	41.8	44.0	2.2	
	철강·비철금속·광업	41.7	41.4	41.8	41.5	41.1	38.8	38.3	38.3	38.1	37.6	38.7	39.8	41.4	1.6	
	기계제조	47.3	47.9	47.3	48.6	46.0	45.5	45.7	45.3	44.0	43.6	44.9	44.3	45.3	1.0	
	전기기계제조	45.2	45.2	45.2	44.9	43.0	42.8	42.8	42.3	40.4	40.4	41.9	41.5	42.6	1.1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8.3	46.3	47.0	46.2	45.7	44.6	46.8	46.8	43.8	42.7	44.0	44.9	44.2	▲ 0.7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7.9	48.6	47.9	46.1	46.2	43.1	44.6	44.6	43.2	43.2	42.6	43.2	44.8	1.6	
	기타 제조	40.0	39.8	40.0	39.6	39.4	39.1	40.6	37.5	37.8	37.0	39.1	35.7	37.7	2.0	
전체	43.2	43.3	43.3	43.5	42.2	41.2	41.6	41.3	40.6	40.1	41.2	40.9	41.8	0.9		
도매	식품료품도매	43.6	43.0	43.1	42.6	41.9	40.9	42.2	42.6	41.0	40.1	41.1	40.4	39.9	▲ 0.5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6.5	37.8	34.4	34.4	33.5	32.7	33.8	35.7	34.6	35.3	33.5	34.5	32.9	▲ 1.6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9.5	41.3	41.5	41.8	40.5	39.1	39.4	39.2	38.4	37.6	39.0	38.9	39.9	1.0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6.8	36.8	37.4	37.2	38.1	37.4	38.0	36.6	36.7	34.2	35.9	36.3	37.4	1.1	
	화학품도매	42.3	42.5	42.8	43.2	40.8	39.2	40.2	39.9	39.4	38.8	39.5	39.4	39.6	0.2	
	재생자원도매	25.8	29.9	26.7	32.1	25.6	28.4	30.7	39.3	33.3	28.3	29.4	35.0	33.8	▲ 1.2	
	철강·비철금속·광업도매	38.5	38.8	39.4	37.7	36.4	35.8	36.1	35.2	34.6	33.2	35.7	36.0	35.5	▲ 0.5	
	기계·기구도매	43.6	43.6	43.4	43.6	42.6	41.2	41.7	40.9	41.1	39.7	40.9	40.5	41.2	0.7	
	기타 도매	40.8	41.0	41.1	41.1	39.9	39.0	39.6	39.1	38.6	38.2	38.0	38.7	38.2	▲ 0.5	
	전체	41.2	41.5	41.4	41.4	40.1	39.0	39.7	39.4	38.9	37.9	38.8	38.9	39.0	0.1	
	소매	식품료품소매	44.5	44.6	41.4	43.2	39.9	40.4	43.4	42.1	38.9	38.6	40.7	40.0	39.5	▲ 0.5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6.9	40.1	36.8	32.1	34.8	31.6	33.3	35.1	32.9	32.5	33.8	32.8	28.0	▲ 4.8
의약품·의료장비소매		46.7	48.6	50.0	49.4	45.3	45.4	46.1	42.0	41.1	37.9	42.5	42.5	42.0	▲ 0.5	
가구류소매		42.9	42.9	42.9	47.2	42.9	40.5	40.5	38.1	42.9	41.7	36.1	35.4	33.3	▲ 2.1	
가전·정보기기소매		44.6	39.6	38.7	40.7	43.8	39.2	40.4	37.7	35.8	36.6	40.2	37.9	42.7	4.8	
자동차·동부품소매		38.6	39.9	38.2	37.9	40.0	37.9	38.6	40.4	37.2	37.0	39.8	40.1	42.3	2.2	
전문상품소매		40.7	39.2	39.8	38.4	40.4	39.2	37.4	38.9	37.0	37.4	37.6	36.7	38.1	1.4	
각종상품소매		47.3	46.5	47.3	43.8	45.0	43.7	44.8	43.3	43.7	42.6	43.2	39.9	40.6	0.7	
기타 소매		44.4	36.1	38.9	43.3	44.4	41.7	44.4	41.7	42.9	41.7	46.7	47.2	50.0	2.8	
전체		42.2	41.6	40.9	40.2	41.0	39.5	40.1	40.2	38.0	37.7	39.3	38.4	39.3	0.9	
운수·창고		45.1	44.7	45.4	45.3	43.2	41.9	41.9	41.5	41.5	40.0	41.5	42.0	42.7	0.7	
서비스		음식점	45.3	49.2	46.2	44.4	47.1	42.1	43.6	43.1	42.3	40.2	45.3	42.2	39.0	▲ 3.2
	전기통신	59.3	57.6	53.0	51.5	58.3	54.2	50.0	59.1	52.4	46.2	52.6	51.1	52.0	0.9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6.7	55.0	55.0	55.0	52.4	53.7	50.0	51.9	47.6	44.4	42.9	46.3	43.8	▲ 2.5	
	리스·임대	48.0	48.0	49.2	49.7	48.1	46.2	47.1	45.9	46.7	45.5	45.9	47.2	47.4	0.2	
	료관·호텔	58.3	61.4	59.1	55.4	56.9	54.7	56.1	50.5	44.4	46.8	47.8	50.0	49.0	▲ 1.0	
	우락서비스	37.9	38.0	38.0	38.6	39.1	37.3	36.9	38.0	36.8	38.4	37.1	38.0	38.1	0.1	
	방송	41.7	45.1	46.9	47.8	43.8	46.9	45.6	46.7	44.4	42.7	43.6	44.4	44.0	▲ 0.4	
	멘テナンス·경비·검사	46.0	46.1	47.1	46.4	44.8	43.8	43.9	44.4	44.3	44.3	46.3	46.4	47.0	0.6	
	광고관련	40.8	40.7	40.3	40.3	39.2	37.2	40.9	37.5	36.8	37.9	38.9	39.2	39.0	▲ 0.2	
	정보서비스	55.5	56.0	54.9	54.9	55.2	53.3	53.4	53.4	52.5	52.2	53.0	52.2	52.6	0.4	
	인재파견·소개	54.2	54.7	52.5	53.1	50.9	52.7	54.7	53.1	52.5	49.4	52.4	52.7	51.8	▲ 0.9	
	전문서비스	51.5	49.0	50.3	52.1	49.1	48.9	49.6	48.3	48.6	49.2	50.5	48.8	50.3	1.5	
의료·복지·보건위생	42.8	42.3	44.1	42.2	39.9	39.2	42.5	41.5	41.4	41.5	41.6	42.6	44.1	1.5		
교육서비스	42.1	45.0	50.8	46.7	46.3	46.8	47.4	43.0	42.2	43.9	48.2	43.1	45.0	1.9		
기타 서비스	49.3	49.2	50.1	49.0	45.9	47.5	47.1	46.7	45.7	46.8	46.6	48.2	47.5	▲ 0.7		
전체	49.6	49.6	49.6	49.6	48.4	47.4	48.2	47.5	46.8	46.7	47.8	47.7	47.9	0.2		
기타	41.4	42.3	41.9	43.8	40.9	39.4	38.8	37.4	37.5	37.5	38.8	40.1	39.4	▲ 0.7		
격차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8.4	8.1	8.7	9.4	8.3	9.0	8.5	8.7	10.3	10.7	9.0	9.3	9.1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중소기업」 과 「소규모기업」 이 3개월 연속으로 개선

· 「대기업」이 46.5(전월 대비 0.8 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 「중소기업」이 41.9 (동 0.5 포인트 연속으로 개선), 「소규모기업」이 41.3(동 0.7 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개선)이 되어 2개월 만에 전 규모가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주택관련이 견조하여 『건설』이나 『제조』 등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중소기업」은 소재생산이나 시설채소 등을 포함한 『농·임·수산』가 크게 개선된 이외에, 「대기업」에서 악화된 『부동산』이 개선되는 등 9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15년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대기업	48.2	48.4	48.4	47.9	47.1	46.0	46.5	46.2	45.7	45.1	46.6	45.7	46.5	0.8
중소기업	43.6	43.7	43.7	43.8	42.5	41.3	41.8	41.4	40.8	40.3	41.3	41.4	41.9	0.5
(그 중 중소기업)	43.2	43.2	43.1	43.3	41.8	40.3	40.8	40.3	39.7	39.6	40.3	40.6	41.3	0.7
격차 (대기업 - 중소기업)	4.6	4.7	4.7	4.1	4.6	4.7	4.7	4.8	4.9	4.8	5.3	4.3	4.6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 별 : 2개월 만에 전 10개 지역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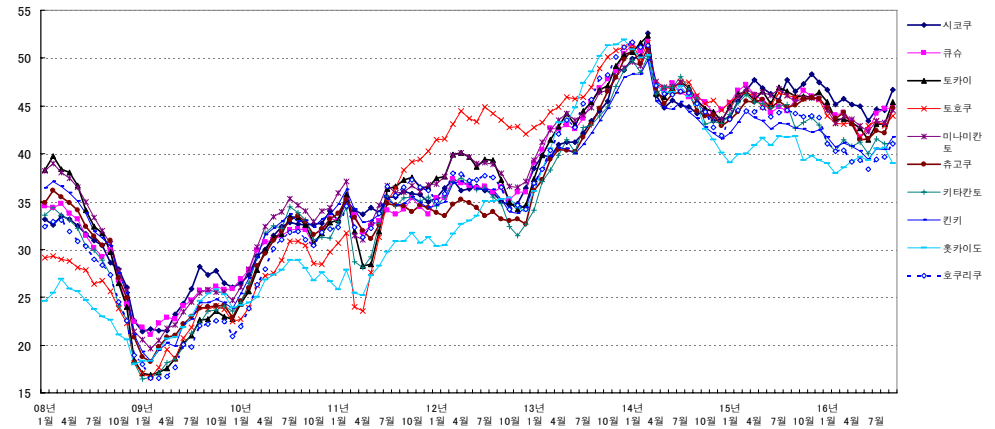
· 2개월 만에 『홋카이도』나 『호쿠리쿠』 『큐슈』 등 10개 지역 모두가 개선되었다. 공공공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건설』이 개선되었다. 『홋카이도』에서는 지역 내 대형 제조사의 생산이 호조로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 『**기타칸토**』 (42.3) ...전월 대비 1.2 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제조』는 지역 내 주요 제조사의 생산호조로 인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나 『철강·비철·광업』 등이 크게 개선되어 2.3 포인트 증가하였다. 주택이나 별장 등의 신축·리폼 등이 견조한 『부동산』 이외에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등 관련 업계의 체감경기도 개선되었다. 또한 「소규모기업」의 개선폭이 10개 지역 중 최대이며, 지역 전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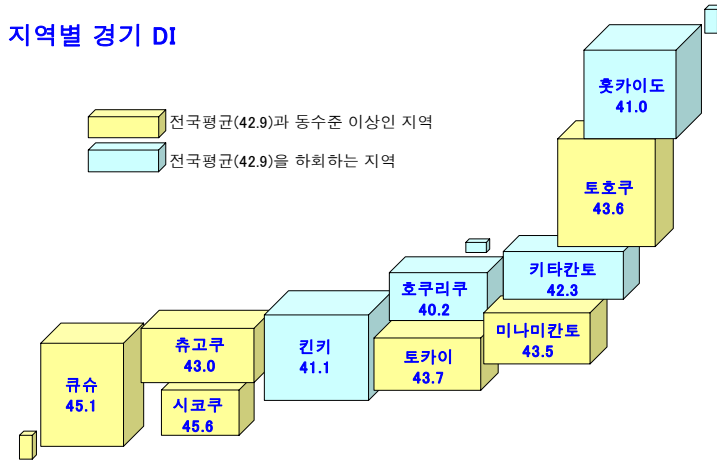
· 『**호쿠리쿠**』 (40.2) ...동 0.6 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호쿠리쿠 신칸센 효과가 이시카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 오피스의 공실률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점이 업황을 향상시킨 「유지보수·경비·검사」나 「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감소가 지속되었던 공공투자가 회복되었으며 주택건축도 자기소유 주택·임대주택·분양주택 모두가 증가하여 『건설』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 『**큐슈**』 (45.1) ...동 0.4 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주택건축은 자기소유주택 등이 향상되어 『건설』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큐슈호트와리」 등 부흥지원책 등에 의해 관광지 방문객이 서서히 회복 중에 있어 오락서비스나 가전·정보기기소매 등을 포함한 『서비스』 『소매』가 함께 개선되어 소비관련이 향상되었다. 한편 「쿠마모토」는 「기계제조」나 「철강·비철·광업」 등 일부에서 생산회복이 지연되어 『제조』가 악화되었고 따라서 동 2.9 포인트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 부터의 월별 추이)



지역별 경기 DI



	15년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홋카이도	41.8	39.3	39.8	39.4	39.0	37.9	38.6	39.2	39.6	39.4	40.5	40.6	39.0	▲ 1.6
토호쿠	45.9	45.8	45.9	45.6	43.9	43.2	43.1	43.3	41.7	42.9	43.4	42.9	43.9	1.0
기타칸토	42.6	43.3	43.8	43.0	41.1	40.3	41.5	40.8	41.2	40.0	41.5	41.1	41.1	0.0
미나미칸토	45.4	45.8	45.8	45.8	44.6	43.2	43.9	43.6	43.0	42.3	43.4	43.2	44.6	1.4
호쿠리쿠	44.2	43.9	43.9	43.8	41.1	40.3	40.4	39.2	39.3	38.4	39.4	39.6	41.1	1.5
토카이	46.0	46.0	45.9	46.4	45.4	43.6	43.6	43.3	42.7	41.5	43.1	43.1	45.4	2.3
긴키	42.7	42.6	42.3	42.5	41.7	40.7	41.1	40.8	40.3	39.4	40.5	40.4	41.7	1.3
추오쿠	45.0	45.6	45.8	45.8	44.8	43.7	44.3	43.1	41.5	41.5	42.4	42.2	44.8	2.6
시코쿠	46.5	47.3	48.3	47.5	46.7	45.1	45.7	45.2	45.0	43.4	44.6	44.5	46.7	2.2
큐슈	45.7	46.6	46.0	45.6	44.8	44.0	44.3	43.4	41.7	42.5	44.2	44.7	44.8	0.1
격차	4.7	8.0	8.5	8.1	7.7	7.2	7.1	6.0	5.7	5.0	5.2	5.1	7.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